

부처가 먼 곳에 있다고, 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성불하기 어렵게 여겨지지만 자성불이 곧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불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진리가 먼 데 있다고 생각하면 깨  
치기 어렵고, 만약 생활중에 있다고 안다면 곧 능히  
깨쳐주어 깨칠 것이다. 모름지기 극력이 자기 마음에  
있음을 알지니라.

## 총지종 제64회 추계 강공회 종단운영 방향과 정책 및 수행체계 개발



지난 제63회 춘계강공회에 전국 스승님들이 참석하여 종단의 종풍을 진작시키고 수행체계와 의식을 점검하고 있다.

총지종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전국 스승님 및 종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추계 강공회를 개최하여 종단의 운영방향과 현황을 조망하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개발 및 교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한다. 또한 수행체계와 불단의 장엄화 및 밀교적 의식체계 개발을 모색하며, 스승들에 대한 전법관정 수계식과 열반스승들에 대한 추선불사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공회는 원의회 및 유지재단 이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종단의 현황문제를 개선하고, 종무행정의 활성화와 교세확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불단의 장엄화, 불사의식 및 수행체계 개발, 도제양성, 사원신축 등 총지종의 교회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공회에서는 효강 종령의 추대 후 처을 맞이하는 강공회로 1년여 동안 사법과 교법을 관장하는 종령의 부재로 대두되었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청정한 계행과 수행으로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포교

방안의 개발 및 사회복지의 활성화, 도제양성 등 종단의 종풍을 새로 진작시

키고자 하는 효강 종령의 의지에 따라 그동안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종단의 운영에 있어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승 통리원장은 추계강공회 개최에 즈음하여 "열린 마음으로 모든 스승님과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종단 운영에 있어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언해 줄 것과 서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종생의 악업을 버리고, 자비한 마음으로 어려울 때 따뜻한 위로의 말과 선업을 지어 내생에서 지어온 업장소멸을 위해 용맹정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지종은 종전까지 강공회가 각종 회의 형태로 진행되어 강공회의 운영형태를 변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내년부터는 창종시에 시행되었던 강공이 스승들에게 사법을 전달하고, 스승들간의 선문답과 교리공부를 주로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전통을 살리기 위해 강공과 회의를 분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화령정사 불교방송 교리강좌 "현대인의 불교입문" 3개월간

총지종 화령 정사(법장원 연구원 : 철학박사)가 10월 11일부터 3개월 동안 불교방송(BBS)에서 교리강좌를 담당하게 된다. '현대인의 불교입문'이라는 주제로 3개월간 계속될 이번 교리강좌에서는 특히 근본불교 위주로 불교의 기본원리를 이해시킴으로써 불자들 뿐만 아니라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이번 강좌를 담당하게 될 화령 정사는 "불교의 근본교리를 최대한 쉽게 이해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생활에

반영하여 물질 위주의 격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잘못된 불교 상식을 바로 잡아 불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전국 불교방송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되는 이번 강좌는 매일 아침 6시 5분부터 25분까지 20분간 방송되며, 같은 날 저녁 9시 5분에 재방송 된다. 라디오방송을 듣지 못한 분들은 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bbsfm.co.kr로 다시 들을 수 있다.

집공으로 개식사, 효강 종령의 추선사, 현화 및 훈향정공, 천수경, 유가삼밀, 창교, 회화가 순서로 진행되었다.

총지종 종령 효강 대종사는 "종조님께서 열반하신 취일을 맞이하여 지나간 먼 일들을 생각하오며 추모의 정을 금할 길 없사오이다. 오직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추복하옵고 이제 간소한 법식과 화과전을 이루었사오니 생존하실 때와 같이 강림하시와 흥향하시기를 서원한다."고 추선사를 올렸다.

이어 우승 통리원장은 인사말에서 "종단도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창종 당시의 열화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위해 수행자로서 자세를 더욱 바르게 하고 참 대승인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승직자는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승직자의 사명을 잊지 말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정진을 하고, 교도들은 밀법의 수승한 종지를 받들어 흔들림없는 신심으로 용맹정진하시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지종은 원정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을 받들기 위해 종조기념관을 건립하여 오는 11월 준공경 대의 귀빈과 사부대중을 초청하여 개관불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 원정종조 24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참 대승인의 본분으로 밀법중흥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9월 8일 전국 사원에서 총지종 창종주 원정 대종사의 입적 24주기 추선불사를 봉행하였다. 특히 서울 총지사에서는 효강 종

령, 우승 통리원장, 서울 경인교구 스승님과 유가족, 교도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재무부장 시정 정사의



종조 원정대종사 24주기 추선불사에서 서울, 경인교구 스승님과 교도들이 참석하여 종조님의 유훈을 받들어 용맹정진을 발원하고 있다.

###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자활후견기관 위탁운영 자활서비스로 자립능력 향상과 지역복지 활성화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승)은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강남자활후견기관의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강남자활후견기관은 2000년 10월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으로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차원에서 2001년 7월부터 성모자

애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내적인 문제로 인해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되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간병, 봉제, 차량광택 및 세차, 자전차 이동수리 등으로 강남지역의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에 위탁 운영하게 될 강남자활후견기관은 관장을 포함하여 직원 6명으로 통리원 2층 건물에 사무실을, 지하실에 작업장을 마련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총지캠페인

#### 팔월 한기위의 반보기

음력 8월은 농경민족인 우리민족에게는 일년 중 가장 풍요로운 달이다. 수확을 마친 사람들은 자연의 여러 신에게 수확에 대한 감사와 다음해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의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의식의 과정에서 축제로 이어지고 그 축제가 오늘날 우리의 큰 명절인 추석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추석 세시풍속으로 벌초, 성묘, 차례가 있고 그밖에 소놀이, 감강수월래, 율계심니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반보기라는 눈물겨운 풍속이 있다. 지금이야 친정집 가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웃집 가기도 더 쉬운 일일수 있지만 옛날에는 시집간 여자의 친정 나들이가 쉽지 않았다. 또한 요즘처럼 교통수단이나 전화와 같은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있어 안부가 궁금하면 서로 쉽게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시집을 가면 여간해서는 서로 소식을 주고받기 힘들었던 데에서 생긴 며느리들을 위한 풍속이 반보기다. 추석날 전에 이미 친정에서 편지를 사든 데에 띄워 추석날 이후 날을 잡아 딸을 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정집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친정에서 시댁까지의 거리를 어렵잡아 중간지점에서 딸과 만나는 것이다. 지금말로 한다면 '추석맞이 며느리 특별휴가'인 셈이다.

평소엔 서술이 퍼렇던 시어머니도 추석날이 가까워 오면 며느리가 반보기가며 입을 웃도 한 벌 지어 놓는 것이고, 그 해 농사에 따라 패물 한 가지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보기에 나설지하면 부엌에서 음식 한 가지라도 더 들고 나와 집 속에 찢어 넣으며 "가서 즐겁게 놀다오너라" 하는 말 한마디. 그 때문에 며느리는 더 눈물이 난다. 친정어머니 역시 딸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사든 데에 보내고자 보파리마다 음식을 가득 담고 이고 지고 집을 나선다.

요즘은 오가는 일이 자유로워서 그런지 딸들의 친정나들이가 오히려 예전 반보기보다 못하다. 저마다 차를 몰고 후다닥 왔다가 후다닥 떠나버린다. 아침나절에 왔다가 점심밥을 먹으면 벌써 갈 걱정부터 한다. 길 막힌다는 핑계로 왔다가 가기 바쁘다. 외손자 얼굴 익힐 겨를도 없다. 새로운 반보기 풍속이다.

#### 죽비소리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별 못하는 벌레를 사람이 미워하듯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 못하는 사문을 성현들은 걱정해 세상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천상으로 가는 데는 계행이 가장 좋은 사다리이다.

그러므로 계를 파한 이가 남의 복적이 되려 하는 것은 날개 부러진 새가 커브를 등에 업고 나는 것과 같도다 자기의 허물을 벗지 못하면 남의 허물도 벗겨줄 수 없나니 어찌 계행없이 남의 공양을 받을 수 있리

『발심수행장』중에서

## 제64회 추계강공

### 금강같은 정진, 교화의 혁신과 종단의 발전...

종조 원정 대종사님께서 흥포한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종수법으로 교화와 포교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 수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3년 10월 18일(월) ~ 총기 33년 10월 21일(목)
- 장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 승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⑱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비구지보살(毘俱胝菩薩) · 다라보살(多羅菩薩)

지난 호에서 연화부원(蓮華部院)의 중심 보살인 성관재보살의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연화부발생보살(蓮華部發生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성관재보살의 위아래에 있는 '비구지보살(毘俱胝菩薩)'과 '다라보살(多羅菩薩)'에 대해서 살펴 본다.

비구지보살(毘俱胝菩薩)

비구지보살(毘俱胝菩薩)은 인도 산스크리트로 브리구티(Bhṛkūti)라고 한다. 비구지란 '눈썹 위의 주름'이란 뜻으로 성관자재(聖觀自在) 보살의 미간(眉間)의 주름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 보살은 공성(空性)을 깨닫지 못하고 무명에 해매는 자를 공포에 떨게끔 하여 성관자재의 대비력(大悲力)에 의해 조복(調伏)시키는 공능(功能)을 지니고 있는 보살이다. 맑은 몸을 한 이 보살의 몸에는 둥그런 광채가 감싸져 있다. 그 광채는 황(黃)·적(赤)·백색(白色)을 띄고 있는데, 황색(黃色)은 증의(增益), 적색(赤色)은 조복(調伏), 백색(白色)은 식재(息災)를 상징한다. 티벳에서는 티벳의 초대 왕이었던 손첸캄포가 네팔로부터 두 번째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그 왕비의 이름이 '브리크티'인데 아마타여래의 화신(化身)으로 숭상되고 있다.



비구지보살

사와타야 사바하'이며,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공포를 격퇴시키는 자여! 흠! 파쇄(破碎)토록 하소서. 사바하'라는 뜻이다.

다라보살(多羅菩薩)

다라보살은 관음보살의 눈(目)에서 나온 여신(女身)의 보살이다. 다라(多羅)는 눈동자라는 뜻으로 관자재보살의 눈이 빛나는 것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한다. 또 다라(多羅)는 '건네다. 나무등'의 뜻이 있어 중생을 피안(彼岸)에 건네준다 하여 구도자(救度者)라고도 한다. 관자재보살의 대비삼매(大悲三昧)의 덕(德)을 주관하며, 푸른 연꽃(靑蓮華)과 같이 티없는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인도나 티벳에서는 성관재보살과 함께 밀교의 대표적인 본존(本尊)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일반화 되지 않은 보살이다. 이 본존을 상징하는 청연화(靑蓮華)는 화병(花瓶)의 끝부분이 검(劍)과 같이 날카롭기 때문에 중생심(衆生心)의 더러움을 끊어 잘라내는 것을 상징한다.



다라보살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비생금강(悲生金剛) 또는 행원금강(行願金剛)이라 부른다. 비생금강은 자비를 일으키는 금강보살이라 뜻이고, 행원금강이란 자비행을 서원하는 보살이란 뜻이다. 같은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삼매야행은 앞에서 말한대로 푸른 연꽃형(靑蓮華)이다. 존형

비구지보살은 성관자재의 대비력(大悲力)에 공능(功能)을 지니고 있는 보살  
다라보살은 푸른 연꽃(靑蓮華)과 같이 티없는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정혜금강(定慧金剛)이다.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나타내는 보살이다. 삼매야행은 수주만이다. 여러 개의 엄주가 꽃다발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 존형(尊形)은 백육색(白肉色)이며 네 개의 팔을 지니고 있고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비(四臂) 삼목(三目)의 보살존(菩薩尊)이다. 왼쪽의 첫째 손에 연화(蓮華), 둘째 손에 병(瓶), 오른쪽의 첫째 손에 수주(數珠)를 들고, 둘째 손에 여원인(與願印)을 맺고 붉은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인상(印相)은 내박(內縛)을 맺고 두 개의 인지(人指)를 세워 교차시킨 모양이다. 내박이란 손가락을 안쪽으로 엮어서 맺는 결인 방법이다.

(尊形)은 청백색(靑白色)으로 하얀 갈마의를 착용하고 마치 중년의 여인이 미소 짓는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에는 화불(化佛)이 새겨져 있는 낮은 관을 쓰고 합장하여 청연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청(靑)은 조복(調伏), 백(白)은 자비(慈悲)를 나타내고 있다. 인상(印相)은 내박(內縛)을 하고 두 개의 인지(人指)와 두 개의 엄지를 세우고 각각의 손가락을 끝을 붙인 형태이다. 이 보살의 진언은 '나막 사만다보다남 다래 타리니 가로다트바바베 사바하'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다라여! 구도자여! 자비로부터 생(生)한 자여! 사바하'라는 뜻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이 보살의 진언은 '나막 사만다보다남 사라비비아타라니 홀

생활속의 밀교

불·법·승의 공경에서부터 수행은 시작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과 그것을 베풀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과 배려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으로서 행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베풀음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는데 스파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과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그의 생애와 그가 성취한 진리로서 "깨달음은 가능하며, 그러한 인간의 완성됨이 바로 이 생의 진실한 목표다."라는 것 입니다. 그분은 정신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상의 모범입니다. 붓다의 생과 그의 사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는 데 필요한 힘과 노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그에 따라 그 마음이 사랑을 실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않으면 분리된 '나'라는 잘못된 견해와 습관을 더욱 공고히 할 따름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목적은 자유입니다. 이를 불교용어로 말하면 해탈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열정으로 구속되는 것으로부터 자유이며 무지(無智)로 인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으로부터 자유이며 궁극적으로 태어남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인 니르바나입니다. 멀리서 그것을 볼 수 있으나 아직 도달하지 못한 눈 덮힌 산의 눈부신 정상처럼 완벽한 자유인 니르바나는 우리가 걷는 팔정도(八正道)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멀고,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험하고 수많은 꾀불꾀불한 길과 옆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옆길로 새지 않고 꾸준히 중요점이 없이 걷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法, 다르마)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도움을 얻는 것은 그것들이 도덕,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명상 그리고 생애 있어서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실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완벽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부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과거와 현재, 깨달음을 얻었거나 혹은 얻지 못하였거나 부처님께서 성취한 것을 달성코자 그들의 공동된 서약으로 함께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스승님이 도움이 되는 것은 깨달음을 이르는 그 길에 우리보다 선행한 그들이 그 여정의 앞길에 대하여 조언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날 때 다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곤경에 처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수행자에게 필요한 그러한 도움은 세 가지로서, 그것은 부처님(Buddha)과 법(Dhamma) 그리고 스승(Sangha)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 부처님의 법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은 오로지 우리 각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스승은 오직 그 길의 방향만을 알려 줄 뿐입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잘 들은 후 스스로 수행하여 올바른 길을 갈 것인지 여부와 그리고 수행의 좋은 결과를 수확할지 여부는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밀교의 수행은 자수법락(自受法樂)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월초불공을 통해부처님, 부처님 법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수행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경/통리원 사무국장/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정시(定施)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회사하는 것을 말한다. 스승이나 교도는 매일 조석으로 염송을 정하여 해야 하며, 일정 금액을 정하여 항상 회사를 해야 한다. 매일 조석으로 염송하는 것을 정송(正誦)이라 하고, 이 정송과 함께 회사하는 것을 정시(定施)라 한다.

정시(定施)는 곡식을 심는 데 밀거름과 같고, 차시(差施)는 옷거름과 같은 것이다. 정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에 즉시 넣어야 하지만 차시는 마음 속에 정한 금액을 나중에 돌아와서 넣을 수도 있다. 절대 있어버려서는 안 된다. 돈을 다른 주머니에 넣어 표시를 해 둘 수도

차시(差施)는 때에 따라서 임의로 회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정시(定施), 차시(差施)

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의 뜻에 따라 회사를 한다. 정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해서 회사한다 하여 차별회사라고도 한다.

이고, 회사금액을 매모지에 있어버리지 않게 적어 놓았다가 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먼 길을 떠나면서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회사를 하는 경우, 나쁜 일을 목격했을 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회사를 하는 경우이다.

이 정시가 자신의 신심을 굳건히 세워 나가기 위해서 매일 실천하는 회사법이라면, 차시는 순간순간 나의 믿음을 망각하지 않게 하는 회사법이라 할 수 있다.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진언행자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해주는 실천수행법인 것이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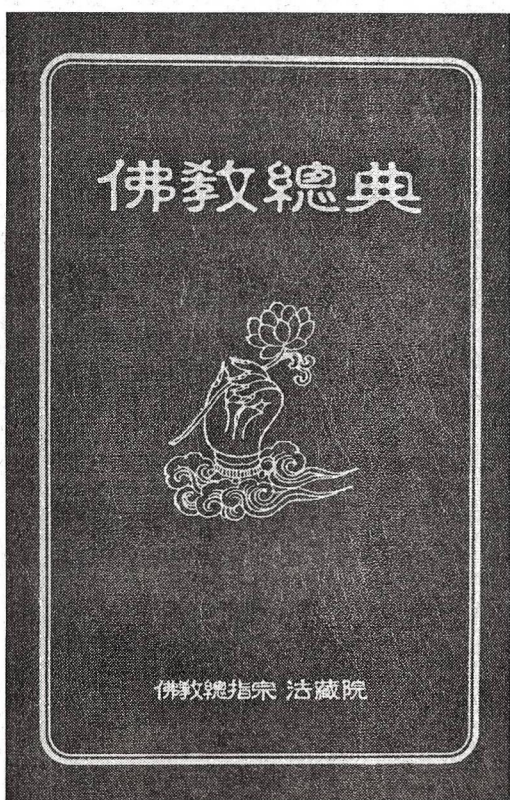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논단

<기획연재>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종조 원정 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 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계(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 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곧 개관될 '종조기념관'의 전시 유품 가운데 일부 원고입니다. 앞으로 원고를 계속 연재할 예정이므로 종조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통해 '종조기념관'을 미리 둘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자주)

관세음보살의 본심 '옴마니반메훬'의 공덕

대승장엄보왕경에 이르시되 관세음보살 본심을 항상 수행하는 사람은 길이 생로병사를 받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이 주문을 염념불망하는 사람은 천재만액이다 소멸하느니라. 대승장엄보왕경에 설 함과 같이 만약 사람이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면 있는 곳마다 부처와 보살을 이루며 외우고 생각하는 사람의 철대 종족이 다 해탈함을 얻을지며, 만약 사람이 관세음보살 본심을 얻으면 탐진치 삼독에 애착함이 없을 것이요 또 이 본심을 머리에 이거나 몸에 지닌 자도 또한 탐진치 삼독병에 물들지 아니할 것이요 이와 같이 이거나 지니는 사람의 몸과 손으로 하는 바와 눈으로 보는 바의 일체 유정이 속히 보살의 위(位)를 얻어 열열 다시 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모든 고생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육자영감 대명왕경에 이르시되 모든 경전은 등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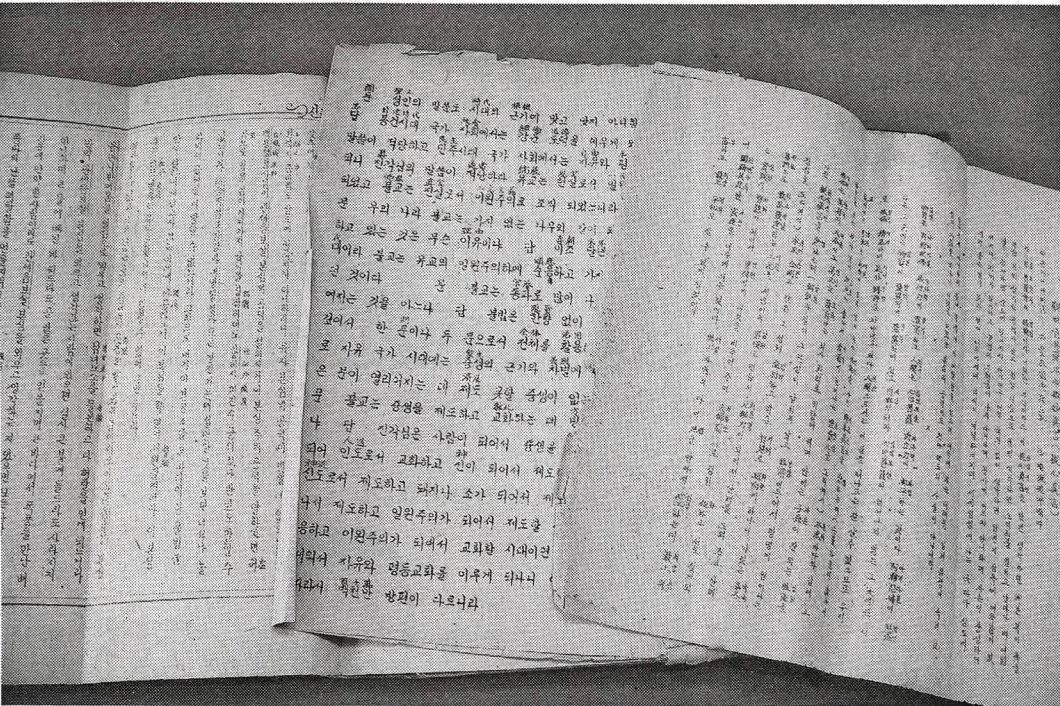
와 같고 이 본심주(本心呪)는 백미(白米)와 같다고 하였나니 우리들이 일심(一心)으로 수행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 하여 중생이 다하기를 원하노라.

무량수 대각님이 살하시되 이 본심을 한번 생각하면 착한 복이 방생(放生) 한번 한 공덕과 같고 마음을 정일(專一)하게 한번 생각하면 오역죄(五逆罪)를 멸하고 날마다 백여덟번을 생각하면 삼도(三途)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일 끊임 없이 생각하면 반드시 관세음보살을 친근하고 놀래고 두려움이 나지 아니하며 횡사(橫死)에 이르지 아니하며 좋은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며 의식(衣食)이 갖추어 넉넉하며 세세생생(世世生生)에 나는 곳마다 관세음보살께서 자재(自在) 하사 떠나지 아니하시니 천겁(千劫) 가운데라도 삼도(三途)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육자 본심의 공덕이 비할 데 없느니라. 백룡성(白龍城) 정사가 관세음보살 본심의 공덕을 설하시되 이 본심주(本心呪)의 공덕을 말하자면 허공으로 입을 삼아 가지가지 공덕을 칭찬하여도 항하사(恒河沙) 미진수(微塵數) 중의 하나 만큼도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헤아릴 수 없고 가이 없는 많은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이 관세음보살 본심 옴마니반메훬를 일심으로 외우고 생각하면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만약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

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풍파의 난에서 해탈함을 얻을지며 설사 사람이 살해를 당할 때나 또 죄가 있거나 하여 만약 수갑(手甲)·착고(?鐵)·항쇄(項鎖)로 그 몸을 얹매더라도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면 다 해탈하는 은혜와 구원

하는 하심(下心), 반은 용맹(勇猛), 메는 묵념(默念), 혹은 지혜(智慧)니 믿고 행하면 생로병사를 받지 아니하며 잊지 않고 묵념하면 천재만액(千災萬厄)이 소멸하느니라. 이 심인(心印)은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본심이라 만법(萬法)을 다 가져서 법계의 진리와 우주의 만사만리(萬事萬理)가 구비하였으니 모든 경전은 등겨와 같고 육자 심인은 백미와 같아서 한번 생각하면 착한 복이 죽을 목숨 한번 살려 준 공덕과 같고 행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면 오역죄를 면하며 철대 종족이 다 해탈함을 얻으며 뱃속에 있는 벌레 등 일체유정이 속히 보살의 마음을 얻나니 이것은 미묘한 본심의 공덕이요 천마 외도의 사술이 아니니라. 만일 큰 불에 들지



옴마니반메훬를 부처와 보살을 이루게 하고, 해탈과 구원을 얻게 하는 관세음보살의 본심주(本心呪)

옴마니반메훬를 송(誦)하고 염(念)하는 것은 행하기 위한 마음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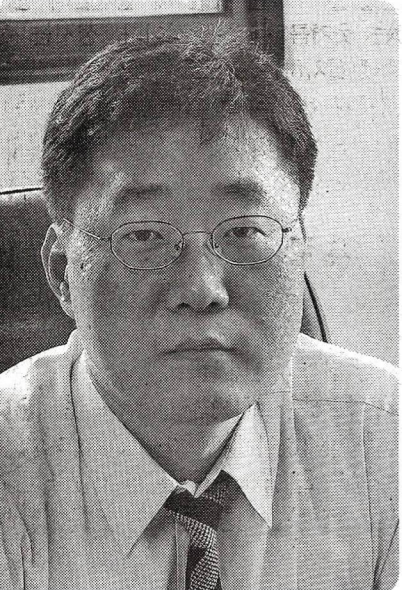
가 이 본심주를 큰 바다의 한 물방울 만큼 설하여 깨닫고자 하는 이에게 제공하노니 이 본심을 꼭 믿어 서원할지이다. 이 본심주의 미묘 변화는 하도 엄중하시더 말할 수 없어 그만 두노라.

으면 설사 큰 불에 들더라도 사라지지 아니하며 큰 물에 빠진 바 되더라도 곧 얕은 곳으로 얻을지며 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배 가운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 본심을 외우고 생각하는 자

를 얻느니라. 심인 옴마니반메훬를 송(誦)하고 염(念)하는 것은 행하기 위한 마음 훈련이다. 옴은 희사(喜捨), 만은 계행(戒行),

강도를 만나 손과 발이 묶이더라도 해탈

과 구원을 얻을 것이며 도적이 와서 칼로 해코지 할 때라도 회사하고 묵념하면 좋은 마음을 내며 독룡과 악마가 침노하지 못하며 악한 짐승이 물러가며 독충의 악한 기운이 흩어지며 천둥치고 번개치며 우박 오고 바람이 불지라도 재앙을 받지 아니하며 횡액과 난리가 일어나도 행하고 염하면 스스로 구원을 얻나니 이와 같이 공덕이 큰지라 칭찬만 하여도 복을 얻을 것이나 비방하면 곧 곤란과 재앙, 우한 질병과 빈천한 지옥의 생활을 하게 되느니라. 좋은 결과가 오는 육행(六行)은 제일 지혜(智慧), 제이 묵념(?念), 제삼 용맹(勇猛), 제사 하심(下心), 제오 계행(戒行), 제육 희사(喜捨)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여 저 언덕에 가는 것이니라. 심인불교(心印佛敎)에서 실행(實行)하고 오는 것은 불경(佛經)에서 이르는 육바라밀행의 실천주의니 이 여섯가지 실천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어지러운 마음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그 여섯 가지의 나쁜 마음을 고치려면, 지혜로써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치한 마음을 고치고, 묵념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맹으로써 게으른 마음을 고치고, 하심(下心)으로써 열이 나고 성이 나고 분이 나는 진심(嗔心)을 고치고, 계행으로써 추잡한 행상과 악마행동을 고치고, 희사(喜捨)로써 탐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육바라밀행인 동시에 대승적 실천불교가 되느니라. (자료제공 : 총학연구소)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치매이야기 ②

치매의 원인과 예방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의 신경세포가 위축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치매의 70% 가량은 대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알츠하이머형 치매이고, 20-30%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뇌혈관성 치매, 10%이내의 대사성, 내분비성 치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예방법은 없으나, 지속적인 지적 활동과 적당한 운동, 비타민 E 등의 항산화제, 항염증제,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젠 보충요법 등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혈관성 치매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혈관성 질환의 경우와 같이 비만

과 고혈중콜레스테롤, 당뇨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이를 위험요인을 조절하는 것이 뇌혈관성 치매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건강상식을 알고 생활습관을 바꾸거나 위험요인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와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10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치매를 걱정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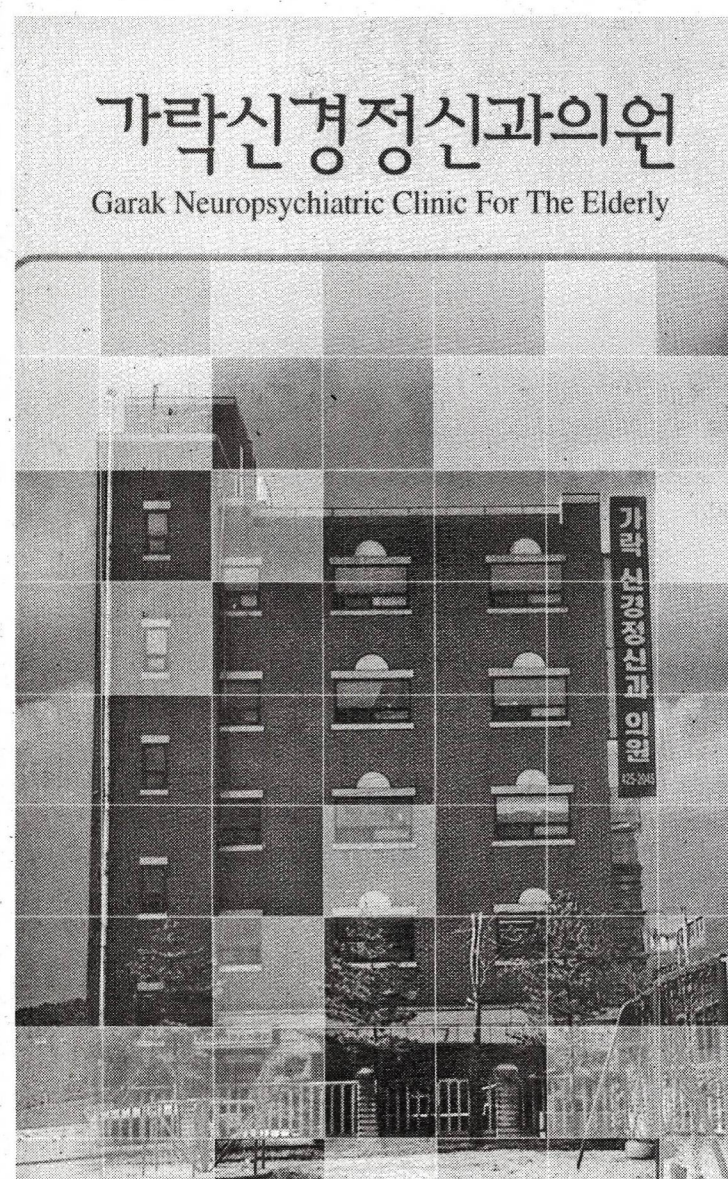
-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 판단력이 감소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지주한다.
- 추상적인 사고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 물건을 잘못 간수한다.
-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가 온다.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가 위축하여 제 기능을 못해 발생 지속적인 지적활동, 적당한 운동, 바티민 E 등의 항산화제가 예방

치매의 예방에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자신이나 가족의 누군가가 치매에 걸렸을 것 같은 걱정이 되는 경우 정신과의사 등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찰을 받고

- 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온다
-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 언어 사용이 어려워진다.

- 성격이 변한다.
- 자발성이 감소한다.
- 가족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시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를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Garak Neuropsychiatric Clinic For The Elderly
주요경력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로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약도
8호선 송파역 2번출구

풍경소리

일주문

사바의 욕심일랑 다 버리고 들어오라  
무얼 그리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는가  
강둑의 물안개처럼 너의 집을 풀어라

쓸데없는 마음이다 녹슨은 자존심만  
네 속에 가득하구나 얼마나 무거웠더라  
버려라, 다 버리고 나서 도량으로 들어서라

네 곁에 함께 서서 피안을 바라봐라  
구름이 일었다가 사라진 서편하늘  
노을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는가

- 고두석/시인

바리춤

별빛이 숨죽이고 석등에 내릴 때면  
연화대 바라보는 영혼 담은 맑은 눈빛  
끝없는 원을 그리며 찾아질 듯 돌아진다.

허망한 속세의 꿈 펼쳐면 굳은 화두  
불거진 핏줄 속에 도도히 흐르는 피  
하얗게 태워 날리듯 온 몸으로 춤추고

겹겹이 쌓인 인연 잘라낸 아픈 가슴  
뜨거운 눈물 방울 꽃비처럼 떨어질 때  
두동살 구름을 타고 현화처럼 너울인다.

회색빛 장삼자라 사바를 휘 덮을 때  
집착의 질긴 인연 끊어 놓는 금빛 바라  
너울진 메아리 폭은 무상을 타이른다.

황홀한 꽃 무지개 연화 빛 그림자로  
손 끝에 다가오는듯 꿈을 꾸는 수미산  
향 물은 바람결 따라 다가서는 님 모습

이마에 흐르는 땀 새벽에 별빛 되고  
찬란한 아침 햇살 밀려든 맘의 평안

고운님 품에 안겨서 이승 끝에서 있다.

- 전선구/시인

송광사 가는 길

시정바람 너무 매워 큰 가람 찾는 날  
나는야 청포도령 신록바다 날은 다야  
보리밭 둔덕에 앉아 보리피리 불다 가네.

학구를 잡아타고 주암호 굽이 돌다  
지붕다리 난간 앉아 팔 다리도 펴본다  
자비론 천 이백 향축 송화향에 젖으며...

약수에 목축이며 공덕빛들 우러르다  
조계산 너덕 가슴 오지랴를 재긴다.  
미소로 철중성도 녹이는 대웅보전 부처님.

황혼길 두려워워 삶이 너무 쓰려요  
모두 곁을 떠나가니 흑운이 엄습해요  
불타여, 이 너른 숲속에 미소 한 자락 주소서.

- 최영교/시인

삼법송

수미산 절린 구름 어찌갈지 앓다 하는  
참말씀 듣고서야 돌아보는 중생의 삶  
이승의 제행무상(諸行無常)이  
인연으로 풀린다.

일주문 올라설 때 숨가쁜 고통처럼  
태어나 늙어가고 병들어 맞는 죽음  
자신의 일체제고(一切諸苦)를  
만생명도 지녔다.

허무를 극복하는 깊은 산 풍경소리  
겸손한 합장마음 만물속에 조화롭다.  
일생을 제법무아(諸法無我)로  
나누면서 살라하네.

- 김광수/시인  
(자료제공 : 불교문예)

원정대성사와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33화~

글:그림/정수일



이달의 명상

스스로 잘못을 참회하는 '자자'

자자란 수의(隨意)라고도 하는데 부처님 당시엔  
우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포살일에 행해졌던 의식  
입니다. 『율장』 「대품」에는 자자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하고 있습니다.

우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 해가 넘어가고 보름  
달이 휘영청 밝아 오면 비구들은 모두 마당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러면 한 스님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  
니다. "대중이여, 들으십시오. 오늘은 자자가 있는  
날입니다. 만약 대중들의 의의가 없다면 교단은 자  
자를 배풀려 합니다."

이렇게 의식이 시작되면 그 스님으로부터 시작  
하여 차례로 모든 비구가 합장한 손을 높이 쳐들고  
는 동료 비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덕들이여, 나는 이제 자자를 행하노니 대덕들  
이 나에 관해서 보고, 듣고, 의식을 지니신 분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해 주십시오, 죄  
를 알면 그것을 제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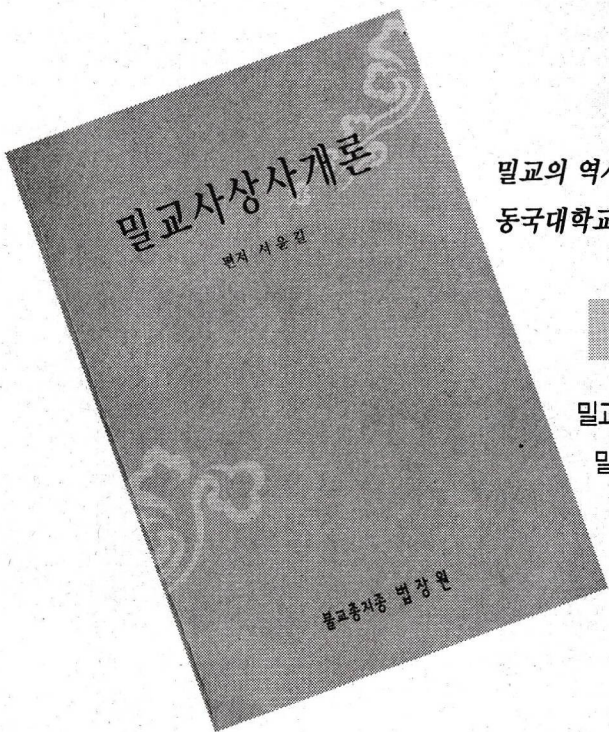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 번씩 청하여 모든  
차례가 끝나면 자자의 의식이 끝나는 것이었으니

부처님을 선두로 신입 비구에게까지 모두 마친 것  
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자란 자신해서 자기의 죄를 지적해  
달라고 청하는 아름다운 의식입니다. 참된 공동체  
생활속에서 살아가는 비구들은 스스로의 죄를 드  
러내어 반성하고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허물은 도  
반의 지적을 받아 고쳐 나갔던 것입니다. 이는 서  
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했던 것  
으로 도반끼리 서로 탐마해 가는 아름다운 수행자  
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자신의 잘못  
을 뉘우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너는 나보다 더  
잘못이 많더라' 하고 맞대응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과 행동을 고  
정화시키지 말고 항상 지심참회를 통해 바꾸어 가  
야 합니다. 우리 진언행자들은 진언연송을 통해 매  
일 참회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청정한 수행으로  
담금질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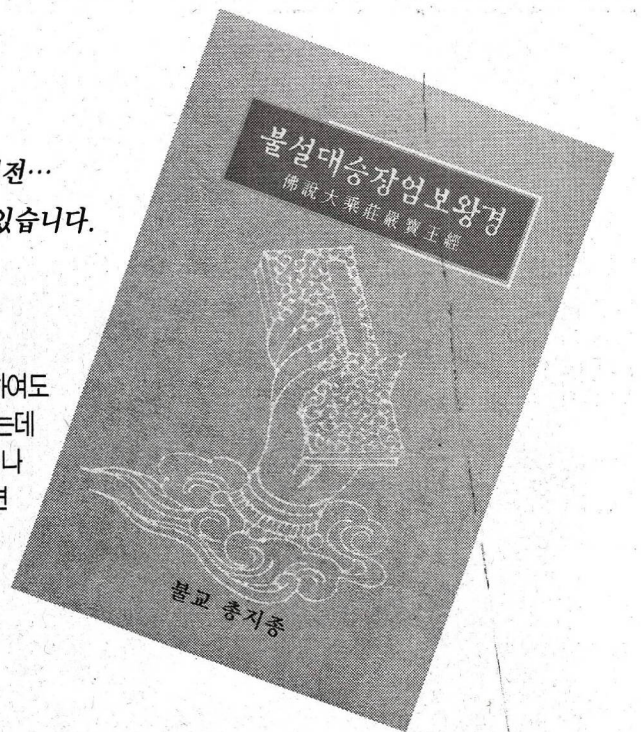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후>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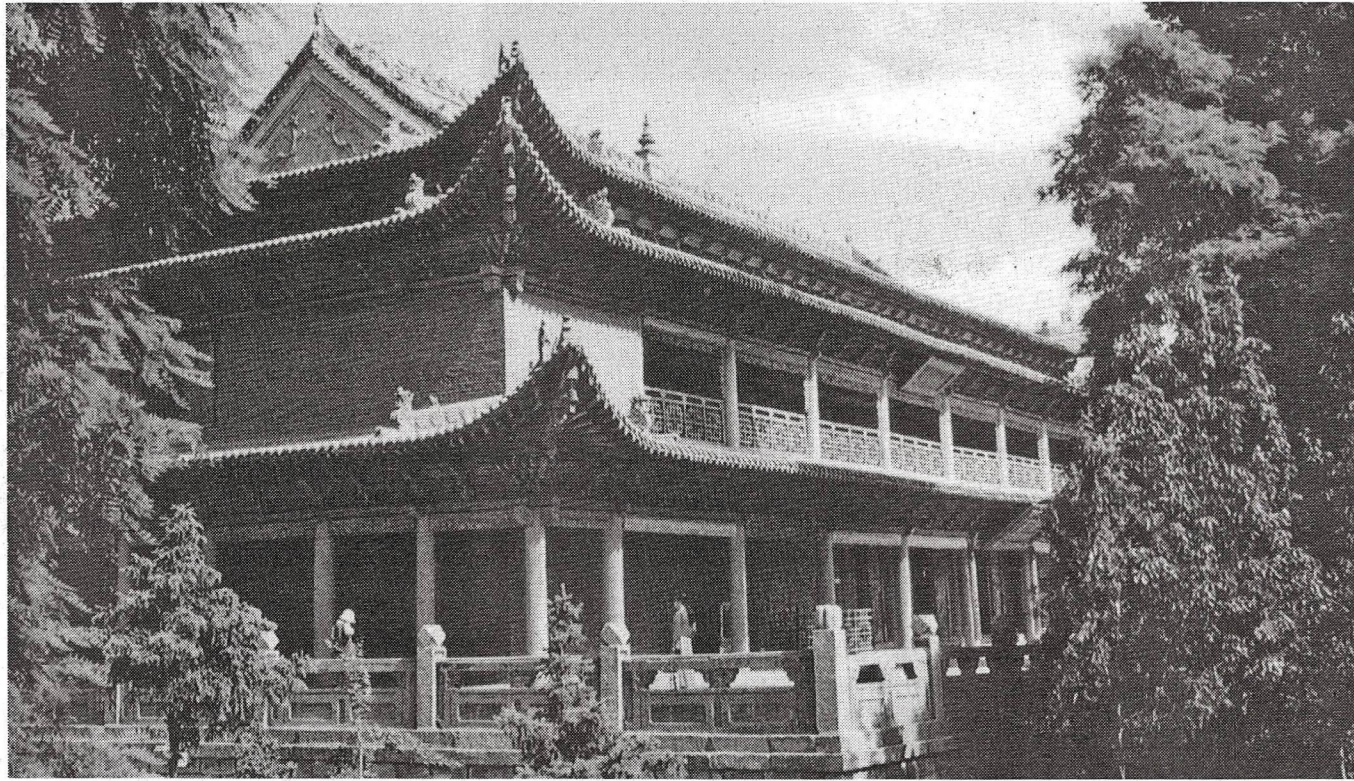
문화기행

중국불교 유입의 길목을 따라

중국 감숙성 불교계를 돌아보며(2)

대작 불사가 이루어지는 역동의 감숙성 불교계

이 글은 법장원 연구원인 화령 정사가 중국 감숙성 불교유적지와 현재 그 지역에서 불교의 역할을 이끌고 있는 중심사찰을 돌아보고 쓴 글이다. 감숙성은 실크로드로 가는 길선도로가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하며 중국에서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땅이다. 이곳에는 불교 전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수많은 유적이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돈황 석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유적이다. 이 글은 감숙성의 불교 유적과 함께 그곳에서 만난 불교계의 여러 인사들에 대한 느낌을 곁들여 3회에 걸쳐 연재된다.



대불사 대불전 전경

장액의 대불사와 만리장성의 끝 가옥관

무위에서 이틀을 자고 7월 31일 아침 일찍 장액(張掖)을 향해 출발했다. 중국이란 큰 땅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시간으로 시차가 없는 관계로 중국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감숙성은 해가 늦게 지고 늦게 동이 뜨기 때문에 아침 6시경이면 거의 우리나라의 새벽 4시경이 된다.

어름이지만 새벽 공기가 제법 선선하다. 아침은 차로 이동하면서 과일 등으로 때웠다. 이곳은 비교적 과일이 풍부한 곳인데 수박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맛이 없고 백옥란(白玉蘭)이라는 메론같은 노란 과일이 참 맛있었다. 생기는 참외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고 아주 달며 값이 싸서 감숙성에 있는 동안 무척 즐겨 먹었다.

무위에서 서북쪽으로 하서주랑을 따라 가다 보면 좌우 산맥 사이의 좁은 목 부 분처럼 생긴 지대가 장액이다. 장액까지 가는 동안은 내내 사막인데 사막 한가운데에 난 길이 감신공로(甘肅公路)라고 하여 난주에서 일직선으로 펼쳐져 신강 위 그루족 자치구의 성도인 우루무치까지 이어져 있다고 한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에 모두 아스팔트를 깔아 놓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실크로드의 북쪽길이 이어진다. 옛날에는 길도 잘 나있지 않았을 텐데 현장스님이 이 길을 따라 걸었다고 생각하니 감개

가 무량하다. 차로 가도 이렇게 끝이 없는 길을 뜨거운 햇살아래 부처님 경전을 구하겠다는 신심 하나로 저 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생각을 하니 옛 수행자들의 구도 정신에 새삼 머리가 수그러진다.

햇살은 정말 뜨겁다. 주위에는 온통 황량한 자갈밭뿐이고 가끔 저 멀리 눈 덮인 기린산맥 나타날 뿐이다. 난주를 떠난 첫날부터 서북쪽을 향해 떠나서 달려가는 우리 차와 마주쳐서 오는 많은 트럭 위에는 위그르 신강지역의 특산물 메론이 차량마다 가득 실려져 있었다. 적재량을 초과한 듯이 실은 많은 트럭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는데 중국전역으로 팔려가는 메론이라고 한다.

불안할 정도로 낮은 차량도 많았는데 수백키로의 먼길을 달리는 속에서 고장이 나서 과일을 잔뜩 싣고서 대책없이 사막 위 대로 옆에 서있는 트럭을 보게 되면 대신 걱정을 하기도 하고 낮은 트럭에 위태위태 너무 많은 과일을 육상트럭 실은 트럭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 손에 땀이 배이 기도 하면서 우리 일행은 뜨거운 사막 위에 뚫린 길을 달려갔는데 그저 중국대륙이 넓다는 생각밖에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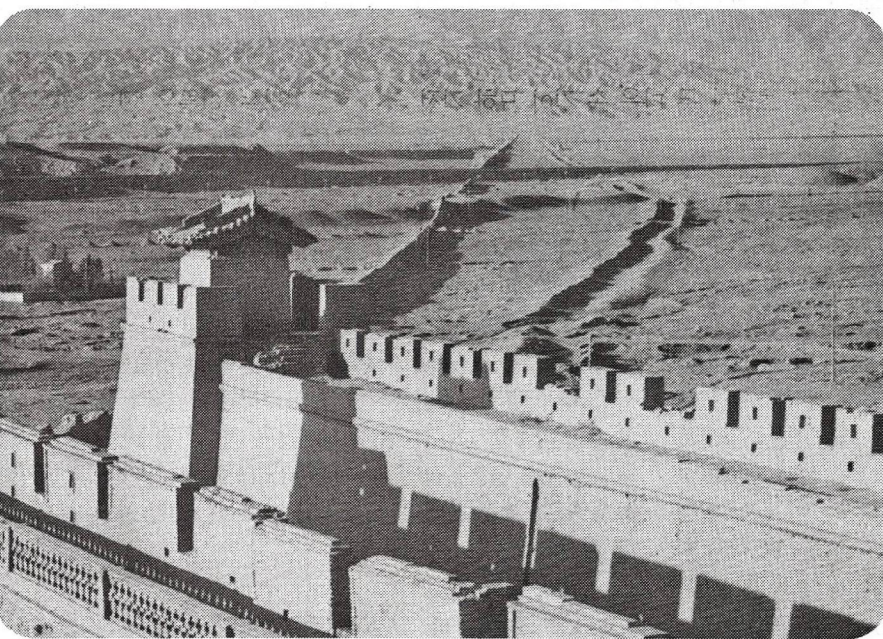
사막 가운데에도 가끔씩 이름 모를 식물들이 무더기를 지어 자라고 있는데 그 끈질긴 생명력이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소변을 보기 위해 차에서 내리니 공기 속에서 무슨 향기가 진하게 느껴졌다. 이혜스님이 풀에서 나는 향으로 양들이 먹고 있다고 한다. 사막지대를 다니는 내내 풀향기를 맡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향이 좋아져서 무의식적으로 향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다.

차마에는 도대체 무슨 생물이 있나 살펴봤더니 개미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도마뱀도 무척 많다. 고운 모래결의 사막이 아니라 척박한 마른 땅으로 이루어진 사막으로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경이롭다. 휴게소란 없는 사막 위 도로에서 약간의 구멍이 있는 곳을 풀러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돌아가며 누군가는 물병을 들고서 일행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봉사해서 마치 노천 화장실이 아닌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듯 하였다. 잠깐 동안 햇살 아래 있었는데도 햇살이 강해서 얼굴이 타는 느낌이다. 가도가도 똑같은 풍경이 전개되어 나도 모르게 차에서 깜빡 잠이 들

었다.

서역 진출의 교두보 장액 대불사의 와불과 장격각

거의 일직선으로 펼쳐져 있는 사막 길을 따라 무위에서 4시간 정도를 가니 장액이 나타난다. 장액이라는 뜻은 중국본



가옥관 성루

토에서 서쪽으로 팔을 펼친 모습을 하였을 때 장액이 겨드랑에 해당된 위치에서 지어진 이름이라는데 말하자면 이곳이 서역진출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셈이다. 이 장액을 교두보로 해서 서역의 여러 루트로 중국인들이 진출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여러 통로를 거쳐 온 서역인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이곳 장액이었던 것이다. 한나라 때에 군으로 설치되고 당대에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도시로서 사막의 오아시스 역할도 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그가 이 곳에 1년 정도 머물렀다고 되어 있다. 이곳 장액은 기린산맥의 눈이 녹아 내려와서 비교적 물이 풍부하여 나무도 많고 농사가 잘되어 하서주랑의 양식창고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주로 생산되는 산물은 밀과 면화 등인데 오랜만에 밀밭과 목화밭을 보니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옛날 풍경을 보는 듯 했다. 뜨거운 햇살 속 여정에서 차에 비록 에어컨이 있어도 차에는 항상 최소 두 상자의 물을 준비해 주었는데 마침 길가 도로변에서 메론을 파는 곳이 있어서 이 곳이 고향인 이혜스님이 직접 플라 한 포대 사서 차에 싣고 가다가 도로변에서 쉴 때마다 맛있게 갈라먹었다. 다 먹고 난 과일쓰레기는 사막에 사는 중생에게 먹을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쓰레기까지 길가에 버리는 현지인들의 자연스런 행동에는 차가 떠나 안보일때까

지 민망하였다.

장액 시내에는 유명한 사찰인 대불사(大佛寺)가 있다. 이 절은 장액시의 서남 부에 위치해 있는데 서하(西夏) 영안 원년인 서기 1098년에 창건된 절이다. 처음에는 가섭여래사(迦葉如來寺)라고 했다가 명나라 때에 중수하여 보각사(寶覺寺)라고 했으며 청나라 때는 공인사(宏仁寺)라고 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어떤 스님이 이 절터에서 와불상을 발견하여 서하왕 이견순(李乾順)에게 바쳤더니 왕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고자 이 곳에 절을 지었다고 한다. 이후 대형 와불을 조성하여 이 곳에 모시고 왕이 절 이름을 와불사(臥佛寺)로 내렸는데 와불이 워낙 크기 때문에 통칭 대불사라고 불렀으며 그 이름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와불은 길이가 35미터로 실내에 모셔진 와불로는 중국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했다. 상호도 아주 웅만하고 와불안에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와불을 모신 대전도 크기가 무척 웅장하여 높이가 20여 미터나 되는데 오랜 역사의 흐름을 거친 모습으로 있었다. 명대에는 역대 황제들이 이 절에 관심을 가져 수 천리나 떨어진 이 곳에 금으로 씌어진 불경을 하사하고 대장경이나 온갖 귀한 것들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명대에는 그 규모도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많이 파괴되어 와불전과 장격각 등 몇 군데만 남아 있다. 특히 문화혁명 때는 홍위병들이 트럭을 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절을 파괴했다는 데 그 무모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잘못된 정치지도자나 이념이 얼마나 나라를 해치는지를 이로써 극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불교 유적들도 무식한 위정자들이나 이교도들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무척 많은데 지금이야 눈이 무서워 대놓고 파괴하지는 못하지만 불교계 스스로도 불교문화재 보호에 소극적이고 사찰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 또한 음성적인 파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곳 대불사에서도 문화혁명 때에 장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스님이 장경을 벽 속에 감추고 걸어서 흙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아 훼손을 면할 수

9면 계속

Advertisement for a women's clinic. Text: '여성美' 조선휘 원장. 이원 여성병(부인과)으로 조선휘 원장. 여성 미의원은 다양한 치료요법으로 여러명의 병환을 앓아왔을 위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dvertisement for a gynecology clinic. Text: 자경단(子經丹) - 초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내막염.

Advertisement for a women's clinic. Title: 여성美한의원. Services: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비만 클리닉, 가족 클리닉, 진료시간. Address: 강남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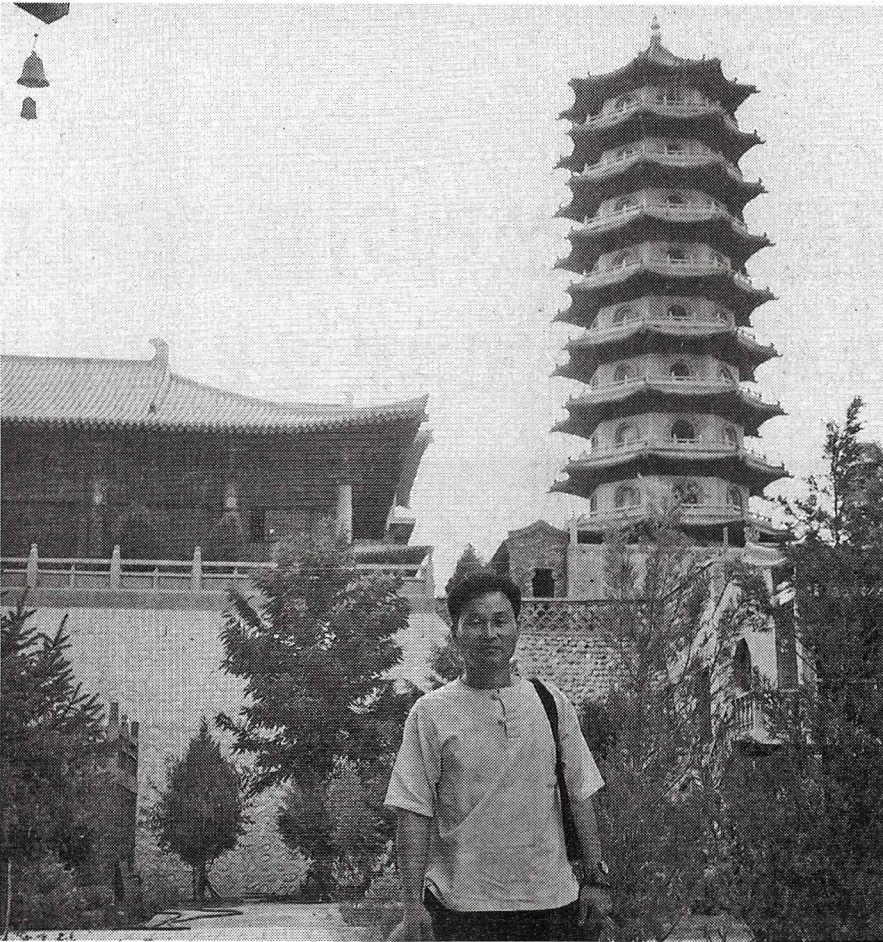
Advertisement for a women's clinic. Title: 여성美한의원. Services: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비만 클리닉, 가족 클리닉, 진료시간. Address: 강남역.

Advertisement for a women's clinic. Title: 여성美한의원. Services: 생리혈분석기, 저동펄장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좌훈욕기. Contact: www.women119.co.kr, 02)545-0072, Fax 02)545-2191.



8면에 이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이 장경들이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고 한다. 와불전 정문의 양쪽에는 벽돌 조각의 정교한 불화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기원연법(祇園演法)'으로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하시는 내용을 담았고, 하나는 서방성경(西方聖境)이라고 하여 아마도 삼존불을 묘사한 것이다. 그 밖에도 와불전 안에는 십팔나한상도 있고 《서유기》가 책으로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의 전설에 관련된 그림도 남아 있다. 유명한 저팔계의 고향이 장액 교외의 고로장(高老莊)이란 곳인데 원래는 무척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손오공에게 패하여 현장스님을 따라나서게 되었고 도중에 내내 고향의 고씨 처녀를 잊지 못해 이 곳 고로장에 돌아오고 싶어 그렇게 말을 부리곤 했다는 것이다. 와불전에 그려진 그림 속의 저팔계는 말쑥꾸러기가 아니라 현장스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역할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이 고장 출신인 저팔계가 고향사람의 그림에서 덕을 보았기 때문이라 한다. 와불전 부처님 열반상의 장엄한 상호와 아주 장엄한 상호의 보살상 등 벽화가 오랜 세월 속에서도 일부 남아있었는데 꼭 다시 찾고 싶은 곳이다.



보당사 대탑과 대불보전

곳 가옥관에서 절정을 이루고는 꼬리를 감춘다. 이른바 만리장성은 주(周)나라 말기에 북방의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진시황이 대부분을 축조했고 그 이후 역대왕조에서 조금씩 연장하여 이루어진 것이 지금의 길이이다. 사막 한가운데에 위용을 자랑하는 가옥관은 명대인 1372년에 축조되었다고 하는데 이후 군사적 요충지로서도 중요한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술한 시인 묵객들의 묘사의 대상이 되었다. 옛 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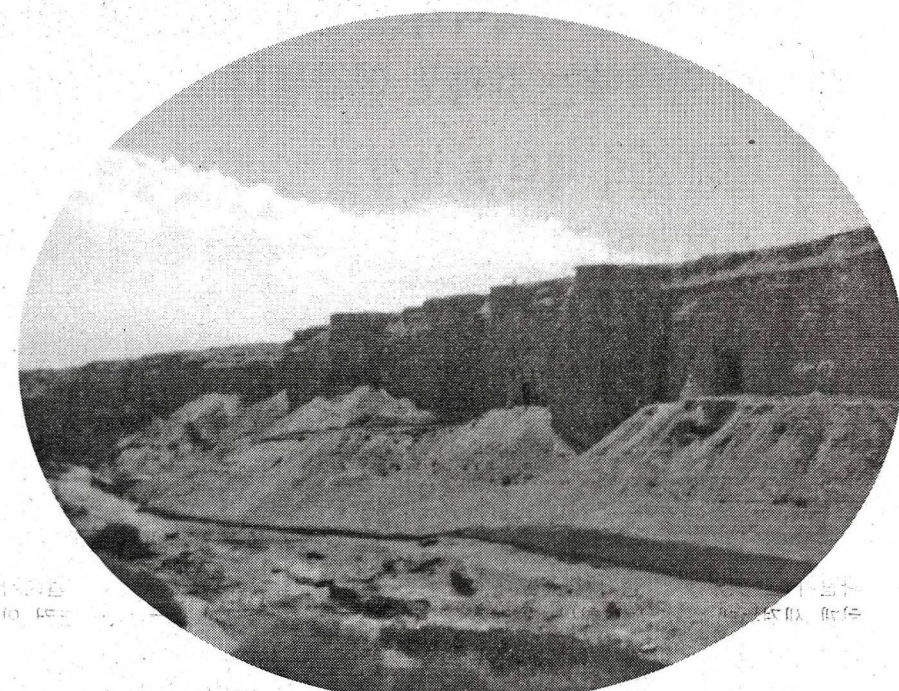
터가 넘는다는데 먹을 것만 있으면 이곳에 옹크리고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리나 여비 등을 감안할 때 일반 사람들은 오기가 좀체 어려울 것 같은데도 이렇게 먼 곳까지도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 중국 인구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다. 가옥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보름달을 감상하고 싶었는데 성수기라 숙소 예약을 하지 못해 주천(酒泉)으로 돌아와서 지게 되었다.

와서 산다고 한들 사막 한 가운데에서 생활 용수를 어떻게 감당해 낼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지만 못내 금금 하였다. 저녁은 법당사(法堂寺)라는 곳에서 먹었는데 오래된 절은 아니고 1995년부터 짓기 시작한 모양인데 사막의 먼지가 많이 날아와서 건물을 뒤덮다 보니 언뜻 보면 매우 오래된 절처럼 보였다. 아직도 계속하여 불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높이 40미터의 팔각불탑은 얼마 전에 완공되었고 길이 36미터의 동와불은 지금 조성 중이라고 한다. 이왕이면 서 있는 불상을 조성하는 것이 나을 듯한데 왜 와불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먼지와 바람이 많은 지역이라서 불상을 실내에 모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불상을 크게는 만들고 싶고 그러다 보니 좌불은 천정 높이가 부담이 되어서 한계가 있으니 와불을 모시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지스님께 질문을 해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는데 법당사 자체가 가옥관에 오는 관광객의 발길을 주천으로 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성되는 절인 만큼 뭔가 특색을 지니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의 불탑과 불상을 조성하는 것 같았다. 어쨌든 완공된 후의 조감도를 보니 그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를 것 같았다. 어쨌거나 이런 대규모의 불사가 이루어져 일반인들이 불교와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게 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태고적 신비를 지닌 유림굴 옛사람의 불심을 보는 듯  
다음 날인 8월 1일은 드디어 둔황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가는 도중에 둔황 석

니 대부분이 평원이고 얇은 산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 인가라고는 보이지를 않았다. 인가는커녕 사람이 산 흔적도 거의 보이지를 않았는데 황량함 그 자체였다. 햇살은 또 얼마나 따가운지 소변을 보기 위해 가끔 차에서 내리면 후끈한 열기가 가히 살인적이었다. 가끔씩 이곳 협곡에서 흘러나온 물이 인공도랑을 타고 물살이 제법 세계 어디론가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아마도 근처의 어느 지역의 생명수로 공급되는 것이려니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기에 와서 새삼 깨달았다. 우리도 얼마 있지 않으면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데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낭비하며 쓰는 물이 환경오염과 함께 결국은 물 부족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막의 흔적이라고는 보이지도 않는 사막을 가로질러 와서 유림굴에 도착하니 태고적 정적에 내가 최초로 이 석굴들을 발견한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 굴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당(唐)대부터이며 오대(五代), 송, 서하 등을 거쳐 원대에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동굴은 모두 43개인데 유림하를 사이에 두고 동쪽 기슭에 31개, 서쪽 기슭에 12개가 있다. 동굴은 당대에서 청대에 보수된 것까지 시대별로 골고루 남아 있는데 완전히 다 개방하지는 않고 그 중 몇 개만 개방하여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훼손된 부분도 많았지만 광장적 정교한 벽화며 소조상(塑造像)들이 남아 있었다. 벽화는 천정에까지 그려져 있었으며 묘사가 매우 생생하고 특히 비취색을 섞어 그린 불화들



유림굴 전경

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교하고 장엄했다. 사실적 묘사를 하면서도 종교적인 경건함과 상상력을 한껏 펼쳐 구상한 벽화들은 가히 국보급이라고 할만했다. 당나라 때의 것들이 비교적 모양도 좋고 색채도 아름다웠으며 원래의 것이 훼손된 자리에 청대의 것이 대신 들어선 것이 있었는데 불상의 상호며 정밀함이 이전 것들에 비해 턱없이 떨어졌다. 역시 불화나 불상은 그 시대의 교세와 신심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도 불교가 흥왕

객도 우리 일행 이외에는 보이지도 않았고 태고적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아주 인상 깊은 곳이었다. 사막 가운데의 이곳에서 동굴을 파고 벽화를 그리고 불상을 조성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천년 뒤에도 이 그림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을까? 오직 불심 하나로 그냥 작업에만 몰두했을까? 천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호흡했다는 뿌듯함만 안은 채 아쉬움을 뒤로하고 유림굴을 떠나왔다.

## 장액은 서역진출의 중요한 거점 가옥관은 만리장성이 끝나는 서쪽의 마지막 관문

을 읽으며 상상하던 가옥관이 내 눈앞에 장대한 모습으로 펼쳐지니 순간 시공(時空)을 초월한 듯 마음 속 깊이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가옥관을 보려고 그 먼 곳에서 달려왔던 사람들 생각하면 인간의 호기심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저 멀리 눈 덮인 기린산맥을 배경 삼아 막막한 사막 가운데 서서 이 곳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수십 층의 빌딩을 짓고 있는데 현재의 주천의 인구를 모두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사막 한 가운데에 대형 빌딩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다. 아마 이 곳을 개발하여 한족을 이주하게 하여 변방의 소수 민족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같았다. 만약 의도대로 수백만이 몰려

굴군(群)의 하나인 안서(安西) 유림굴(榆林窟)에 들었다. 유림굴은 만불협(萬佛峽)이라고도 하는데 안서현 서남쪽 75킬로미터쯤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림하(榆林河)라는 협곡을 따라 흐르는 하천에 양쪽으로 유수(榆樹)가 우거져 있어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곳을 찾아가는데 사막 한 가운데에서 길을 물어 볼 곳도 없고 한참을 헤맨 끝에 황량한 사막의 한 가운데서 부모와 그 자식으로 겨우 세 명의 어린아이들을 만났다. 밝고 귀여운 표정의 아이들은 절반이 안되는 물이 담긴 패트병을 들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손짓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다. 왜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한 가족이 뜨거운 햇살아래서 황량한 사막에 앉아 있는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겨우 동굴이 있는 골짜기에 도착했다. 가는 도중에 보

주천이라는 이름은 옛날 한무제(漢武帝) 때에 광거병(去病)장군의 공로를 치하하여 무제가 술 한 단지를 하사했는데 광거군은 혼자 마시지 않고 금천이란 샘물에 부어 병사들과 같이 나누어 마신 데서 유래한다고 한다. 현재의 중국 정부에서는 이곳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수십 층의 빌딩을 짓고 있는데 현재의 주천의 인구를 모두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사막 한 가운데에 대형 빌딩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다. 아마 이 곳을 개발하여 한족을 이주하게 하여 변방의 소수 민족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같았다. 만약 의도대로 수백만이 몰려

사막의 요새 가옥관

가옥관은 만리장성이 끝나는 서쪽의 마지막 관문에 축조된 성채이다. 만리장성은 동쪽 끝이 발해만 연안의 산해관을 기점으로 해서 장장 6,000km를 달려와서 이

# 불교방송 총지종 광고, 교리강좌 안내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아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승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약세를 정확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불교방송 강좌 안내

- ▷ 프로그램명 : 불교강좌
- ▷ 방송시간  
오전 6시 5분 ~ 6시 25분  
오후 9시 5분 ~ 9시 25분(재방)
- ▷ 강사 : 화령 정사님
- ▷ 방송기간  
총기 33년 10월 11일부터 3개월간

※ 광고기간 및 시간 (9/14~3/4)  
오전 10시 30분, 오후 5시 30분

BBS FM 전국네트워크	서울 FM 101.9MHz	청주 FM 96.7MHz
	부산 FM 89.9MHz	춘천 FM 100.1MHz
	광주 FM 89.7MHz	안동 FM 97.7MHz
	대구 FM 94.5MHz	포항 FM 105.5MHz

아제아제 바라아제

남을 이해한다는 것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를 바라보았다. 언제 나 그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도 한다. 상대의 관심여부는 별반 신경 쓰지 않는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해야 이야기는 끝이 나는 듯했다.

처음에 나는 별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괴로웠다. 그래서 이야기를 중단시키는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유도했다.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 최소한의 응대라 이야기의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리고 속으로는 '쓸데없는 것에 저렇게 시간을 소비하다니...!' 하며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때 문득 '외롭구나! 외로워서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마음에서 측은지심이 생겨났다. '그래, 조금 더 잘 들어주자....'

얼마 전 나는 미얀마의 우 조디카 스님의 책을 두어권 읽었다. 스님은 책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바라보는 것, 즉 늘상 변화하는 마음을 잘 바라보고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잘하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조금이라도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마음 기울여서 대상을 지켜보는 짜따(念) 수행법은 단지 일상의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차원에서부터 존재의 본질을 직관하는 차원까지 그 쓰임이 방대하다. 그리고 사실상 불교수행의 핵심이기도 하다. 일단 짜따가 잘 되어야 깊은 집중에 들어갈 수 있고, 짜따가 잘 되어야 높은 통찰지혜를 얻어 번뇌를 끊고 니르바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열반이 아니더라도 고난의 집결에 빠져있는 우리 실존의 현주소를 살피서 일상의 고통지수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만 있다면 짜따수행은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혼돈과 권태를 피해 끊임없이 밖으로 내달리는 마음이라는 놈의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타인과의 진정한 교감이란 힘든 일로 보기가 때문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내달리는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들여다보면 마음은 순간 방향을

자신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상대를 잘 이해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내달리는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통찰력으로 자기를 보라

나는 그 때 내가 그저 마음을 바라보는 것, 잠시 마음작용에 끌려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새삼 느꼈다.

사실, 나는 요즘 남편과 사이가 더욱 좋아진 것이 이런 나의 '마음바라보기'에 대한 작은 생각과 남편의 수행 덕분이라고 여긴다. 남편은 자신을 바라보는 명상수행을 하는데 수행이 깊어질수록 더욱 맑아지고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의지 작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우러나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신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상대를 잘 이해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모양이다.

읽고 주춤거린다. 그리고는 수많은 마음작용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통찰력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보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제서야 마음속에서 미약하나마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마음은 스스로 겸손해진다. 나 자신을 비추어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그 순간 무거운 번뇌의 질량을 조금 덜어내고 그 만큼 더 가벼워진다. 그것은 강요된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작용으로 일으키는 선의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니르바나에 한발 다가서는 것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과 감정으로 얼버무리다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는 각자를 분리시키는 예고의 두터운 성벽이 엄존하고 그 성벽들 사이에는 깊이와 넓이를 가능하기 힘든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검푸른 강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과 절망이 앞선다.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온 이후로 자아의식이라는 성 밖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가본 적이 있을까? 저 강물을 건너 다른 성문을 열고 들어가 진실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을까? 만약 누군가 자신의 내적 체험 속에서 예고의 성벽을 허물었다면 그는 이미 중생이 아니라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일 것이다.

(김선미/인드라마생명공동체 총무국장)

교계소식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정토회 백일간 ‘빈그릇 운동 전개’



우리나라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53%는 일반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다. 물기가 많은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특성 때문에 매립하면 수질 오염이 심각하고 소각할 경우 불안 전 연소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남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서로 화합과 이해”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 영결·다비식

선학원 전 이사장 남산당 정일 스님 영결식이 지난 11일 오전 11시 오전 법주사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됐다. 삼귀의, 참회, 착어, 행장소개, 헌화분향, 조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에서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정일 스님은 법주사 문중의 사표로서 후학을 이끈 큰 스승이었으며, 법주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가람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명으로 천년도량을 일신하셨고, 자비와 보살행으로 문도를 화합승가로 만들어 주신 공덕을 사부대중은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일 스님은 1956년 조계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 1957년 사미계를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0~1969년 망월사, 범어사, 용화사, 통도사 등에서 인거성 만했으며, 1970년 백련사 주지, 1974년 보광사 주지, 1998년 선학원 이사, 1992년 법주사 주지, 1993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정일 스님은 임직직전 상좌에게 “내가 오늘 꼭 갈 것 같다.”며 “개는 개소리를 하고 소는 소소리를 한다. 남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스님답게 살며 화합해 서로를 이해하고 잘 살기 바란다.”는 유지를 남겼다.

정일 스님은 임직직전 상좌에게 “내가 오늘 꼭 갈 것 같다.”며 “개는 개소리를 하고 소는 소소리를 한다. 남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스님답게 살며 화합해 서로를 이해하고 잘 살기 바란다.”는 유지를 남겼다.

에서, 14일은 부산 롯데 백화점 앞에서 부산지역 ‘빈그릇운동-음식 남기지 않기 10만인 서약캠페인’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운동에 나섰다.

이날 정토회 회장 유수 스님은 ‘빈그릇 운동은 내 건강, 지구환경을 지키고 굶주린 이웃을 살리는 실천이며, 빈그릇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

태고종 17세종정 혜초대중사 추대법회 “새불교 구현에 가일층 정진”

태고종은 지난 6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제17세 종정 혜초 대중사 추대법회’를 봉행하였다. 추대법회에는 총지종 우승 총리원장을 비롯하여 태고종 원로회장 일우스님 등 태고종 스님들과 조계종 총회회장 지하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총리원장 효암정사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역대종정 및 조사 스님 차례를 시작으로 종사이운, 명종, 삼귀의, 상축, 약력소개, 전수 품봉정, 화환증정, 법어,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혜초스님은 193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하여 45년 진주 청곡사에서 청봉화상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해인사 전문강원 대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임제대 선학과를 졸업했으며 해인사, 선암사에서 인거를 하며 수행에 전념하였다.

한편 종정 혜초 대중사는 임기5년 동안 태고종림 순천 선암사에서 주석하면서 율원살지를 비롯해 총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력하며 태고종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총지종종 확립과 후학의 수행지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 풍물패 금상수상 제6회 전국중고자원봉사대회

총지종 종립 동해중 풍물패가 제6회 전국 중고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하였다. 전국중고 자원봉사대회는 모범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중고생들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프로그램으로 푸르덴셜생명과 한국 중등교육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실시된 이 대회는 현재까지 6만 8천여명의 중고생들이 응모하여 1만 6천여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해중학교 풍물패는 1998년 특기적성 사물놀이반으로 조직되어 농악전수자인 ‘김상현 선생’의 지도하에 2002년 부산에서 열린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에서 장원을

도와 불자들은 이 시대 중생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새 불교를 구현하는데 가일층 정진하라”고 사자후를 내렸다.

태고종은 지난 6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제17세 종정 혜초 대중사 추대법회’를 봉행하였다. 추대법회에는 총지종 우승 총리원장을 비롯하여 태고종 원로회장 일우스님 등 태고종 스님들과 조계종 총회회장 지하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총리원장 효암정사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역대종정 및 조사 스님 차례를 시작으로 종사이운, 명종, 삼귀의, 상축, 약력소개, 전수 품봉정, 화환증정, 법어,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혜초스님은 193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하여 45년 진주 청곡사에서 청봉화상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해인사 전문강원 대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임제대 선학과를 졸업했으며 해인사, 선암사에서 인거를 하며 수행에 전념하였다.

한편 종정 혜초 대중사는 임기5년 동안 태고종림 순천 선암사에서 주석하면서 율원살지를 비롯해 총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력하며 태고종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총지종종 확립과 후학의 수행지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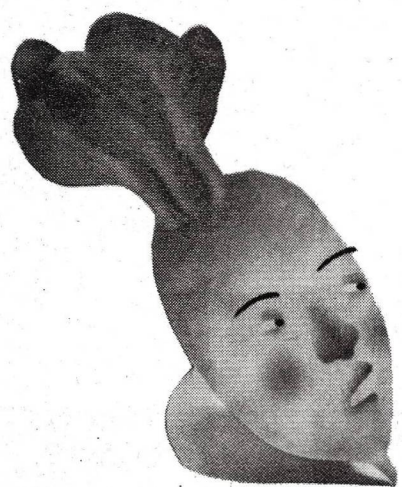
태고종은 지난 6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제17세 종정 혜초 대중사 추대법회’를 봉행하였다. 추대법회에는 총지종 우승 총리원장을 비롯하여 태고종 원로회장 일우스님 등 태고종 스님들과 조계종 총회회장 지하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총리원장 효암정사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역대종정 및 조사 스님 차례를 시작으로 종사이운, 명종, 삼귀의, 상축, 약력소개, 전수 품봉정, 화환증정, 법어,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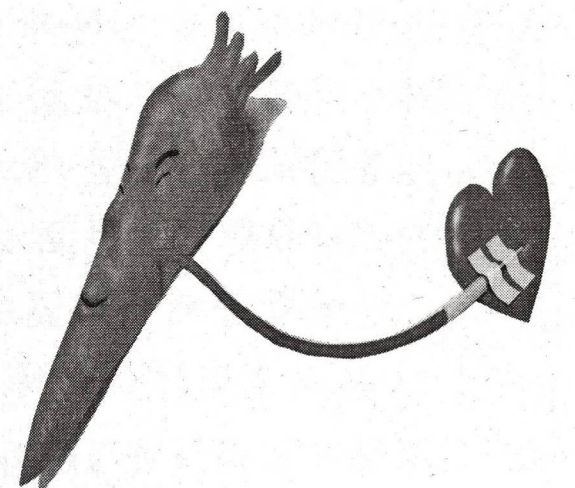
적십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알버트 A슈바이처-



너 헌혈했니?

선진외국에서는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은 자국에서 해결토록 하는 자국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혈액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당군야!

대한적십자사

# 제1회 달마마라톤 대회 및 행복문화축제

## 달리며 화합과 나눔의 상생의 길



제 1회 달마마라톤 및 행복문화 축제가 지난 12일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행복문화축제로 나눔과 화합을 다지는 목적으로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계종 서울광역시도회(회장 김진관)와 불교 텔레비전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나눔과 화합의 문화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축제마당이다.

이번 대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

된 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10살부터 74세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가족, 단체별 1천여명의 불자와 서울 시민들이 참가하여 하프코스, 10km, 5km 코스로 나누어 달렸다.

이날 마라톤 하프코스 남자부 부문에서는 1시간 20분 50초의 기록을 세운 이지원씨가, 여자부 부문에서는 1시간 30분 33초의 기록을 낸 류소화씨가, 10km 남자부 부문에서는 문희철(35분 26초), 여자부 부문에서는 김유미(40분 27초)씨가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 종회의원 일민스님을 비롯해 중앙산도회회장 백창기 씨 등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행복문화축제에서 김진관 회장은 대회사에서 "개 개인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며, 나아가 국가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달마는 오늘 이 시대의 건강한 인간표상이며, 건강한 사람들이 행복을 노래하는 문화의 한마당을 펼치면서 소외되고 힘겨운 이들도 초차도 함께 봉사하고 기여하는 미래적 가치를 현실화하여 나눔과 화합의 사회정의를 형성하고 확산해 가자"고 밝혔다.

행복문화축제는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의 '나눔의 자비명상', 안동 용수사 주지 하유스님의 '법고공연', 금강승 선관무의 '선무도공연', 조계사 청년회 '길상공원의 사물놀이', 흥대부숙여고 댄스팀의 '합합공연' 등 다양한 행사와 가수 조항조, 최유나, 주열리, 최진희, 이정현, 비 등이 참가하여 참석한 시민들에게 흥분과 감격을 제공하였다.

### 신행체험 15

## 열심히 닦아 부처님, 중생은혜 갚아야



신인록 (부산경남교구 지회장)

▶ 처음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계기?  
처음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것은 진언종에서 7년동안 수행하고 있다가 경제적 해탈을 바라는 마음에서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27년 전 정각사에서 불공하면 경제적 해탈과 더불어 가정해탈을 이룰 수 있다는 소문에 의해 정각원 스승님을 뵈었습니다. 정각원 스승님께서 "왜 여기에 찾아 왔는가?" 하고 물어보았을 때 저는 "경제해탈을 바라는 마음에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각원 스승님께서 "그럼 한 번 해봅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총지중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을 하다보니 모든 것은 나의 행동과 인에 의해 달려 있는데 주위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에 대한 지심참회를 통해 경제적 해탈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님의 지혜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나란 놈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이리저리 날 뛰는 원숭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항상 마음속에 행복의 부처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만나는 한 사람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다면 어떻게 웃는 얼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행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부처님의 진리안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살님의 가족사항과 하시는 일?  
현재 각자님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1남 3녀의 아이들도 모두 결혼하여 각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각자님께서는 제가 절에서 불공할 때는 불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족은 월초불공 때가 되면 매일 전가족이 1시간씩 영송하고, 절량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각사는 총지중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자부심과 더불어 긍지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보살들이 이러한 신념을 가지게 된 동기는?  
정각사는 총지중에서 교도수가 제일 많고, 많은 스승님과 보살들이 배출되는 곳이며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보살들이 경제적, 가정적 해탈을 이루며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지중 종합학교인 동해중학교가 바로 옆에 자리잡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 정각사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이 있다면?  
정각사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은 너무 커서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해탈과 더불어 가정해탈을 이루어 부처님의 은혜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신행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간직된 경구나 철학이 있으시다면?  
저는 "열심히 닦아서 부처님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갚아라."라는 경구를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닦는다.'는 것은 내태환이 없는 용맹정진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항상 인욕하며 정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진을 통해 마음자리를 싹피고, 부처님의 공덕도 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각사에서 신행생활하면서 얻은 공덕이 있다면?  
정각사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은 너무 커서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해탈과 더불어 가정해탈을 이루어 부처님의 은혜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각사는 많은 보살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계시는 지?  
사람들은 각자 생활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나의 주장과 생각에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위치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보면 서로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마음속에 미움으로 간직하지 말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합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수행자로서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부산경남교구 지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려운 점은?  
부산경남교구 지회는 부산경남교구 각 사원의 신정회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회는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지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의논하고 서로간에 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 정각사는 훌륭한 스승님과 간부보살님들이 서로 화합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일을 직면하였을 때는 마음에 흥분이나 동요를 하지 않고 차분히 불공하면서 들끓는 마음을 정리하고 나를 죽이고, 부처님의 법대로 지길 도리를 지키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 되는 것 같습니다.

▶ 보살님께서 항상 웃는 얼굴과 자비행을 실천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근원?  
사람은 살다보면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부

▶ 마지막으로 중단과 부산경남교구 지회에 바라는 점은?  
총지중은 부산경남지역에 많은 사원이 존재하고 교도들도 종단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각 보살들을 위한 노인복지실과 납골당이 부산경남지역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 지회장으로서 아닌 한 보살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중단과 부산경남교구 지회에 바라는 점은?  
총지중은 부산경남지역에 많은 사원이 존재하고 교도들도 종단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각 보살들을 위한 노인복지실과 납골당이 부산경남지역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 지회장으로서 아닌 한 보살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나도 한마디

며칠 전 한 단체의 행정수반으로써 근무하다가 퇴임한 후 5년여 지났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5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의 완공을 위해 사업 시행자를 찾아다니며 결국에 중단된 사업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그 분은 재임기간 동안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중단된 일이 발생하여 단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 사건의 발단은 단체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약상 상대방은 사업의 추진금액을 인수하고 계약을 이행

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일이었다. 자신과 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일이 본의 아니게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분은 단체의 행정수반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 당사 계약처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에 체결된 금액을 환수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완공하든지 결정하라고 하여

않았으며 한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단체에 중요한 부분일 때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원만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지만 자신과 관련된 일을 마무리 하지 못하리 단체에서 물러났을 때 추진되었던 일을 중단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곤 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퇴임 후에도 관심과 정열로 중단된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이는 잔잔한 감동을 주며, 책임을 회피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김영란/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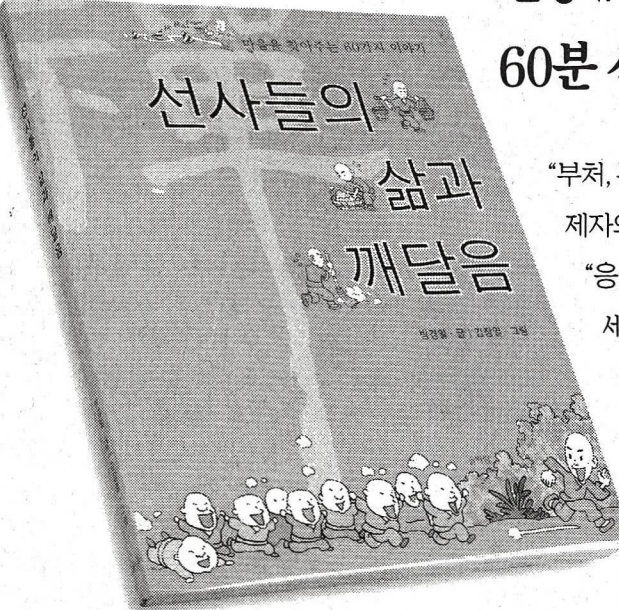
며칠 전 한 단체의 행정수반으로써 근무하다가 퇴임한 후 5년여 지났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5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의 완공을 위해 사업 시행자를 찾아다니며 결국에 중단된 사업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그 분은 재임기간 동안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중단된 일이 발생하여 단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 사건의 발단은 단체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약상 상대방은 사업의 추진금액을 인수하고 계약을 이행

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일이었다. 자신과 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일이 본의 아니게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분은 단체의 행정수반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 당사 계약처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에 체결된 금액을 환수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완공하든지 결정하라고 하여

않았으며 한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단체에 중요한 부분일 때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원만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지만 자신과 관련된 일을 마무리 하지 못하리 단체에서 물러났을 때 추진되었던 일을 중단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곤 한다.

## 마음을 찾아주는 60가지 이야기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선종(禪宗)의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분 선사들의 삶이 여러분 곁에 다가옵니다!



"부처, 부처 하는데 도대체 부처가 뭐니까?"라는 제자의 물음에 어느 선사(禪師)는 "응, 그저 '마른 톱 막대기'야!"라고 했다. 세상에, 우주万물의 본성과 그 작용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고귀한 부처님이 겨우 톱 막대기라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지만 선사들의 세계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일러 준 정확한 대답'으로 통한다.

- 머리말 중에서 -

\*수련회, 각종 법회 등 불교행사시 법보시나 법우들간의 선물용으로도 최고!  
\*미음시리즈 1권과 함께 구입하시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더욱 좋습니다.

